

발제문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을 중심으로 —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1. 머리말

근래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점차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 여파로 안전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불안과 위협³⁶⁾을 느끼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가주의 논리로 무장하고 성장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해온 근대 산업문명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분절된 많은 개인은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며 복지, 주거, 교육, 정보 담론 등 다양한 담론에서 소외당하는 ‘사회적 배제’라는 고독감과 고립감을 겪는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이 현대인이 느끼는 심각한 사회문제다.³⁷⁾

지금 정부는 시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 문화활성화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약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체

36)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에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놀이터'란 사회가 개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말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 안에서 공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의 분석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10519818.html.

37) '한국사회의 빈곤 상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강신욱 외, 2005)

관련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³⁸⁾ 문화예술분야도 2011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생활문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공사례는 찾기 힘들다. 지원 사업 기간 후에는 공동체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추거나, 언론을 통해 모범사례로 알려진 유명한 벽화 마을들은 지금 그곳 주민에 의해 그림이 지워지면서 깊은 갈등만 남았다. 이는 공동체의 자발성을 통제해야 하는 지원사업의 모순적 한계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원 목적과 평가 방법, 제시된 정산 규범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방법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대상들 간에 일어나는 경쟁심을 적극적인 주민 참여 동기로 삼으려는 것이다.³⁹⁾

공동체의 성장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자유로운 개성들이 기진 역량과 그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미를 찾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의 성과 지점은 그 구성원 개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민주적인 합의, 자율적인 협동 과정에 있다. 가시적이고 양적인 결과는 오히려 그 과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 이를 바탕으로 하는 소속감과 연대감, 상호의존관계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방법 제시보다는 구성원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이나 의식 변화를 전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글은 인천 ‘문화바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예술이 갖는 공동체 활성화 요인을 제시하려 한다.

공동체 활성화 주요 요인을 수평적 소통과 자율적 협동, 지속할 수 있는 자립과 일상

38) 한국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정부 부처 14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 1700억원, 2015년 1조 1800억원 등이다.

39)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생활 의미 수준을 높이는 창작,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여 환경을 만드는 전업 활동가로 나누어 생활예술이 이 요인들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소개할 것이다.

2. 생활예술 공동체 ‘문화바람’ 소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이하 센터) 1996년부터 문화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후 2005년 재창립을 맞아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예술가나 정부 정책이 아닌 시민문화운동에서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인 문화수용자로, 생활권내 일상영역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의 건강한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토양을 만드는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이다.

오랫동안 인천은 인근 타 도시보다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이 오지 않았다. 인천 시민은 공연을 잘 보지 않아 기획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즉 인천에 열악한 문화환경은 그 책임이 시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센터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수용자 운동을 설명하고 CMS 회원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400여 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는 센터가 96년부터 8년 동안 연평균 회원이 5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 곡선이다.

우리가 회원이 되어 돈을 모아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무료로 관람하자는 문화수용자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콘서트’는 2회 공연을 모두 매진하는 1600명이 관람을 했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공연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공연을 못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인천 시민에 그간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고, 또한 변화에 대한 요구와 참여 의지가 있는 것도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늘어난 문화바람 회원은 연 5회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는 회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 1회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직접 배우고 연습하는 동아리 회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1) 수평적 소통 (사회적 개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첫 번째 동기는 기능 습득과 숙련을 바라는 자기만족이다. 오직 자신을 향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결심과 선택이다. 기타를 잘 치고 싶고, 신나는 밴드공연을 하고 싶은 바람에서 맘에 드는 동아리에 가입한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몇 주가 지나면 만족 원인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다.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더 큰 만족이다. 경쟁과 이해 관계없이 같은 취미를 공감하고, 서로 익숙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느끼는 안정감이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 오고, 일주일 만에 바뀐 상대방의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며, 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결속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높인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를 견디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타자와의 친근한 만남은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의 공유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입장을 드러내고 토론이 이루어진다.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 기준이 바뀐다. 그동안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관념적인 위계질서인 소득과 교육수준, 직업, 나이 성별 등의 차이가 서열로 작동했으나 이제는 전인격적 관계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다. 심보선은 이런 결사체를 ‘작업장 공동체’로 설명한다. ‘생활예술 동아리 구성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인간적 호흡의 교환, 협력적 작업,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꾸려 나가는 데서 오는 행복감에 초점을 맞춘다’⁴⁰⁾는 것이다.

또한, 생활예술활동에서는 경쟁이 필요 요소가 아니다. 스포츠활동과 같이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을 경쟁하지 (과정이 공정하고 모두 인정하더라도) 않아도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즐겁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예술 활동의 속성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남에게 쉽게 드러내고 다른 의견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 과정에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참고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참조

40)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가 된다는 감정은 사회적 존재감이다. 그동안 고립감과 배제감을 느끼던 개인이 사회적 개인, 즉 공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위계와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소통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경험을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소통과 표현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⁴¹⁾ 이렇게 동아리 구성원들 안에서 사회적 위계질서와 차별을 극복하고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랑시에르가 말한 민주주의가 사회적 약자인 몫이 없는 자들에 몫의 실현이라고 할 때⁴²⁾ 소통능력은 이를 이루는 중요한 힘이 된다.

이러한 수평적 소통 관계 형성은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결정에 실천적인 행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였는가?’ 그 결정에 따른 유, 불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참여자들이 어떠한 강제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예’ ‘아니오’를 표명하는 실천적인 소통을 하였는가?’ 를 측정 지표로 제시했다. 무임승차나 배제는 자율적 협동의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2) 자율적 협동 (호혜적 연대 공동체)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피하고자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혹은 그러기 바라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려고한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은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깨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구성원들과 공통된 이해관계, 목표,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제한된 존재를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 의지로 선택한 소속은 다른 구성원이 인정하는 조건, 즉 사회적 규율 준수를 지켜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는 공유하는 유 무형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과의 합의에 동의하는 공유화 과정이다. 이렇게 개인은 집단을

41) 엄기호, 『단속사회』, 창비, 2014.

42)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인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선택하고 환대받으며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우리’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재규정 된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 위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은 주로 소속 공동체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새로운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경험, 즉 민주적 소통과 표현 감수성으로 높아진 자존감은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성원과 낯선 사람인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공동체 속성이다. 공동체의 연속성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소속감으로 외부와 구분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속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그동안 국가주의와 시장경쟁을 동력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집단주의로 이용하기도 했다.

집단 정체성에 경도된 배타적 집단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나 갈등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사회를 양극단으로 대립시키고 서로를 증오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힘을 결집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집단을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국가적 대형 사고들을 대하는 치열한 입장 대립이 그랬다. 사건을 유발한 사회 구조와 부정의에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 정체성을 내세워 타 집단을 적대관계로 규정하며 비이성적인 증오와 멸시,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소속된 개인의 행동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인 연줄 네트워크나 이익 담합공동체와 같은 유사공동체다.

문제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가이다. 찰스 타일러 Charles Taylor는 전체 내의 소수자 집단에 요구하는 정체성을 ‘동일성’으로 정의하는 데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기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와 종교, 문화적 근본주의는 자신의 견해를 우세하게 하고 세력을 키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자율과 근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 문화적 근본주의는 세속적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자발성과 의지로 자율적 협동이 일어나는 조건은 구성원의 일체성을 위해 관리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구성원과 권력을 나누

고 함께 책임지는 제도문화에서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 공동체의 현안을 내 문제로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주인의식이다. 그리고 그 주인의식은 구성원의 도덕적 양심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의 문제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 뽀루뚜알레그리는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 주민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유는 정책 시스템 때문이다. ‘참여 예산제’는 작고 가난한 마을 주민들까지 모든 시민은 시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 이러한 협치는 그동안 행정역량으로 불가능했던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주민의 창조적인 정책 제안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참여 예산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사업과 예산 분배, 집행 그리고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몫이 없는 시민들이 몫을 행사한 결과다. 심리학에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이론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은 참여나 개입,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으로도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3) 자주적 자립 (지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생활예술 공동체에서 자립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본주의적 통념이나 시장 경제적인 평가나 압박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와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의미에 동의하여 연대하는 협동조합 목적과 같다. 또한, 어느 정도 자립을 통해 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줄여 효과적인 공익사업을 위한 수평적인 민관협업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그렇다고 생활예술 공동체에서의 자립이 간신히 생존하는 상태인 자급(subsistence)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다. 신자유주의적인 무한 이윤 추구하고 소유가 아니라 충분함(sufficiency)의 실천 윤리를⁴³⁾ 실현하는 ‘공유’에 관한 것이다.

자생적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거점 공간 마련과 유지다. 소통과 관계로 신뢰가 높은 공동체도 깨지고 흩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공간 유지비용이 원인이다. 요즘 사회쟁점이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도 이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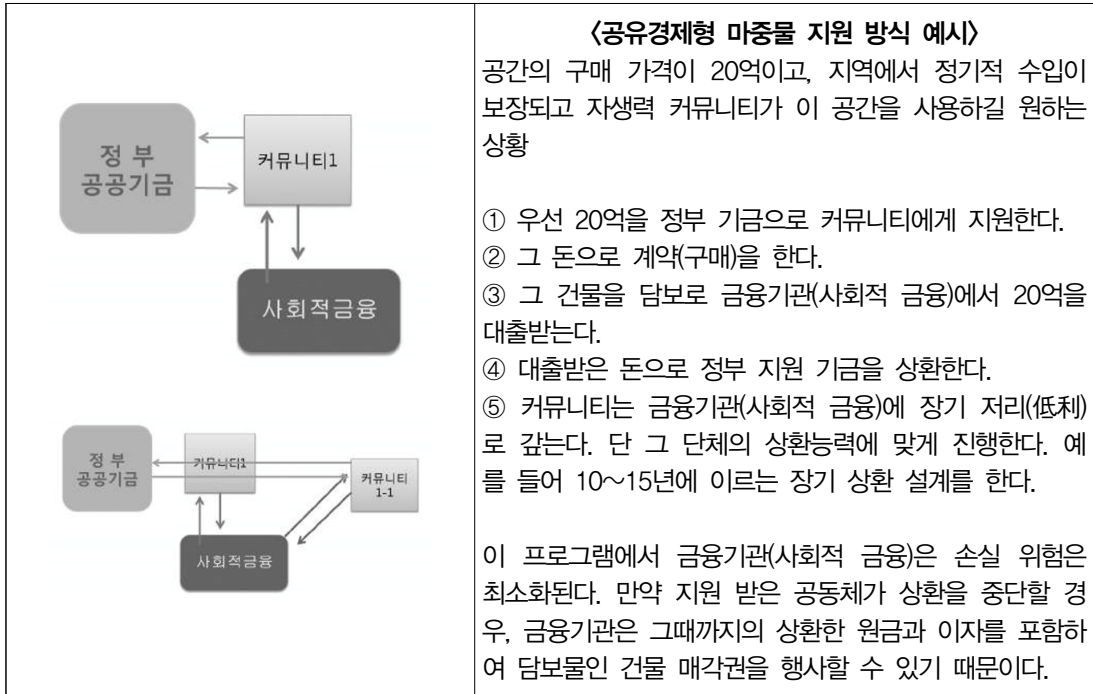
지금까지 정부의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방식은 행정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위탁 형식이나 한시적인 조건부 임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정치적 외부 압력과 조정,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 등으로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간 이용자, 즉 구성원들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시도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며 지속할 수 없었다. 공모를 통한 공간 지원 경우도, 과업에 따른 공간 운영 기간이 한정되어 지속적 성장과 경험 축적이 힘들다.

공간의 자생성을 위한 마중물 지원제도

필자는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정책’⁴⁴⁾을 제안한다. 마중물 지원제도 방식은 우선 지원 대상을 지역에서 정기적인 수입 구조나 자생력을 갖춘 커뮤니티가 지원 대상이다.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은 자생력이 있는 커뮤니티가 공간을 매매 혹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최초 정부 지원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간 담보와 역량에 맞는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 이 대출금은 정부에 상환하고 커뮤니티는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43)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2015. p62.

44) 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일명 ‘마중물 지원제도’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사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76년 설립된 그라민 은행은 설립 초기, 150달러 미만의 돈을 담보와 신원 보증 없이, 하위 25%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줬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 장기 저리 신용대출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한 지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상환을 등 신용이 떨어지면 다른 신규 대출자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두는 시스템으로 서로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그라민 은행의 상환율은 설립 이후 연평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 퀘벡주 일반 영리 금융에서도 시행한다. 캐나다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에만 투자하는 투자기금이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만 대출을 해주는 이 기금은 상당 부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출자에서 시작되지만, 노조 기금이나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도 투자자로 참가해 자금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자금을 투자해 15년 동안 상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른바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Fiducie’를 운영하는 ‘상티에’(Chantier)의 부대표 ‘마틴 프라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 부문에 장기 저리로 투자하는 것은 금리는 낮지만, 일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일반 투자보다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출 금액이 공동 소유인 점과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내부 공동자산으로 쌓아두는 특성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그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일반 기업체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다.⁴⁵⁾

4) 전업 활동가 (생활예술 철학을 지닌 촉매자)

‘문화바람’ 공동체에서 전업 활동가들은 공동체 구성원인 동시에 매개자 역할을 함께 한다. 생활예술 전업 활동가는 사업에 있어서 목적과 결과보다는 과정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헌신하는 봉사자가 아니다. 이 경우 오히려 활동가는 관료화의 오류에 빠져 구성원을 대상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매개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의 예술적 감수성과 이해는 생활예술 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행정 업무 능력, 구성원 내 관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급하지 않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매개자나 활동가 역할 없이 생활예술 공동체가 공적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공동체의 운영에는 ‘예술적 취향’과 ‘사회적 관계’, ‘조직 내부’와 ‘조직 바깥’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문화매개자로서 전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⁴⁶⁾

전업 활동가는 생활예술이 가는 철학적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5) 2012년 07월 13일 자,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⑩. 협동조합의 성공조건, CBS 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46) 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 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경제와 사회. 한울출판사. 겨울호

다양한 관계 경험과 현안 해결을 통해 얻은 지식(Know how)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래서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가들 내부 조직도 개성을 중시하고 협동을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고 소통하며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활동가 조직 내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율성 보장은 활동가의 자존감을 높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활동가 조직이 권위적인 소통체계로 양적 성과나 결과에 책임과 부담을 느낀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저해하는 통제나 관리의 사업방식에 원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는 시민을 잘 통치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과 협동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하고 가꾸는 역할을 해야한다. 즉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계몽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참여’로 함께 이루는 사람들이다. 전업 활동가는 구성원들을 자신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만드는 자다.⁴⁷⁾

5) 일상생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창작 (생산과 소비의 주체)

생활예술에서 창작은 예술의 소비나 유통을 넘어서는 생산 활동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창작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에게 절실한 것,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나와 우리를 차분히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 동네와 지역 사회 혹은 우리 사회 전체를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⁴⁸⁾ 창작은 공동체 구성원의 평범한 노동과 일상이 소재가 되어 그 의미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창작에 대한 타자의 공감과 지지는 긍정적인 되먹임이 되어 생산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게 된다.

존 듀이는 문화가 허공에서 만들어진, 혹은 자기 자신들이 이룬 인간 노력의 결과가

47) 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48) 김태현. 2016. [안산의 지역공동체 연극] 성공회문화대학원.

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장기간 쌓이고 쌓인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했다. 이처럼 예술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매체인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 의미를 갖고 만들어진다.

이제 더는 생활예술의 의미와 그 역할이 순수 예술보다 숙련도가 낮거나,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생활예술은 ‘모두를 위한 예술’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신조로 미적 자율성을 표방하는 예술가/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전 고대 예술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고양된 것들이며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다. 지금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는 아우라를 지닌 예술작품 들은 그 당시 사회적 목적(의미)에 일치되어 생산되었다.⁴⁹⁾ 그래서 예술은 직접적인 삶과 경험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의미도 유지할 수 없다.

의미에서 모더니즘 이후 커뮤니티아트나 사회참여예술 등과 함께 나타나는 생활예술은 근대 이후 문화 자본으로 작동하던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예술 근원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동안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산업 문명이다. 산업사회는 국가주의와 집단적 획일주의, 시장 경제와 성장주의로 무한경쟁을 일으키며 자율적 개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지금 이 산업 문명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와 환경에 지속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며 구질서가 돼가고 있다. 또한 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단순계에서 복잡계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요동이 창발하는 환경은 자율적인 개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혼돈상태에서 가능성이 커진다. 관성과 부정의에 대한 자각이나 새로운 문화변동에 대한 욕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작은 요동을 만들고 있다. 그 요동은 처음 자기 축대로 공명을 동해 동조화를 만들어 내면서

49) 이재언 옮김,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새 질서가 되어 구질서를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그 요동은 의미에 따라 부정적인 되먹임을 받으면 공명에 실패하고 사라진다.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결국, 문화변동과 사회 패러다임 변화는 의미에 긍정적인 되먹임을 일으키는 일상생활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생활예술과 이를 매개한 공동체 활동은 협동에 의한 자주 관리가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여 역량을 발현하는 조건이다. 자율은 자신이 실행한 노동 결과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기대와 무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자주 관리 운영에서는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합의된 시스템의 공정성에 구성원들이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 원리에 따라 생활예술 활성화 정책은 중앙 계획과 통제를 줄이고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영역도 구성원의 자주 관리에 확장 이양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예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demo(민중)+cracy(통치) 즉,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은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자격 없는 자, 몫 없는 자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통한 감성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⁵⁰⁾고 한다.

생활예술은 감성적 실천 영역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주체로 갱신되고 고양을 바라는 개인이 부르는 예술의 새 이름이다.

50)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